

임상실습 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김 정 호¹⁾ · 박 미 경²⁾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에서의 학습과제 뿐만 아니라 실무 현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과제들도 잘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므로 학교 교육의 모든 활동은 그 자체가 문제해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박정환, 우옥희, 1999). 이에 문제해결 과정을 도와주는 영향요인을 밝히고 학생들에게 미흡한 요인을 함양시켜서 학생들로 하여금 학습 행동을 촉진하고 스스로 학습과 문제해결의 결정자가 될 수 있도록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 효율적이며 창의적으로 다양한 간호 실무에 대응해야 하고(오원옥, 2002), 매우 복잡한 간호영역에서 자기주도적으로 전문적 학습을 하고 의사소통과 숙련된 간호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내에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박경님, 박미경, 2008).

문제해결과정은 어떤 특정한 문제해결 모형에 대한 습득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진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어떤 정보와 지식을 어디서 찾아 활용할 것인지, 특정 정보와 지식은 어떤 식으로 특정 상황에 적용되어 지는 것인지, 그 결과 해결안은 어떤 것이 될 것인지와 같은 전반적인 과정을 학습자 스스로가 주도해 가는 길이다(강인애, 1998). 이러한 측면에서 학습자가 학습 내용을

결정하고 학습한 결과를 통해 문제해결 전략을 선택하고 적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방법에 의해 추구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 형태의 등장은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자기주도학습은 개인이 스스로 학습에 대한 흥미를 갖고, 열정을 느끼고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개인의 특성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우선되는 개념(김교식, 2004)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지식의 정보화 시대에서 간호조직이 개개인에게 필요한 학습 내용을 모두 제공해 줄 수 없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요인이라 생각된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형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학습자에 의해서 스스로 결정되고 그 결정의 기초는 학습자 개개인의 가치, 욕구, 선호 등에 두는 개방적 특징을 갖고 있어 준비가 필요하다(오원옥, 2002). Guglielmino(1977)는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를 8가지 성향 즉 학습에 대한 사랑, 효율적이고 독립적인 학습자로서의 자아개념, 학습에 따르는 위험·혼란, 복잡함에 대한 참을성, 창의력, 학습을 평생의 유익한 과정이라고 보는 관점, 학습의 주도권, 자신의 이해, 자신의 학습에 대한 책임감으로 설명하였다. 간호학생들이 이러한 성향들을 갖추고 있다면 미래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적합한 이론과 실체를 연결하여 합당한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준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시뮬레이션 실습실을 구축하고 교육하는 간호교육의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준비 자세와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엄미란, 김현숙, 김은경과 성가연(2010)도 실습교육에서 강조되

주요어 : 문제해결, 간호학생, 임상실습

* 2010년 조선간호대학 학술연구비 지원받음.

1) 조선간호대학 교수

2) 남부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E-mail: pmk0220@nambu.ac.kr)

투고일: 2011년 9월 29일 심사완료일: 2012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9일

는 부분이 학생의 자기주도성과 문제해결 능력이라고 하였다. 실습과 관련된 자기주도성 학습이 부족하면 변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필수 능력, 즉 비판적 사고나 문제해결을 향상시켜 나갈 수 없다(O'shea, 2003). 자기주도학습은 임상수행능력과도 밀접한 정서관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된 바(양진주, 박미영, 2004) 학생들에게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풍부하다면 임상문제를 현명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O'shea, 2003).

또한 실습학생들은 자율적인 학습 환경에 적응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인 동기에 의해 자신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스스로 설정한 목표에 몰입하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리드하고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키워야 한다(양동민 등, 2011). 이러한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스스로 목적인 바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과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며, 자신에게 동기부여하면서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과정(Manz, 1983)으로 최근 간호환경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리더십 개념이다. 셀프리더십은 전통적인 리더십과는 달리 개인의 전문성 및 효과성, 그리고 내적통제위의 맥락에서 설명되어왔다(Kazan, 2000). 다시 말해서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탐구과정(Manz & Sims, 1995)이므로, 셀프리더십이 높을 경우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속성은 개인의 업무수행이나 문제해결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결과를 이끌어내게 한다고 하였다(Diliello & Houghton, 2006). 특히 간호학생들은 임상실습 중에 간호과정에 맞추어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동안 학습하는 부분이 많아서 자기주도적 학습이 훈련되는 경향이 있지만(오원옥, 2002)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인 셀프리더십(Manz, 1983)은 자기주도 학습 태도를 함양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발전과 그가 속한 조직의 성과도 높인다고 하였다(박경님, 박미경, 2008).

최근 간호학문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려는 높은 관심과 함께 자기주도학습의 영향요인(박지원, 방경숙, 2010; 김근곤, 윤진, 최경윤, 박선영, 배진희, 2008)에 대한 연구로 학습유형이나 교육방법과의 관련성을 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자기주도성에 관련된 인구학적, 사회심리학 변인으로 교육 및 문화적 환경, 학년, 내외통제성, 자기발전 동기성향, 자아존중감, 연령, 소득, 자기효능감(고정은, 2003; 유귀옥, 정지웅, 1998; 오원옥, 2002) 등이 연구되었으나 셀프리더십과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또한 팀학습이나 문제중심학습, 실습교육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연구(김근곤 등, 2008; 김윤희, 장금성, 2011; 엄미란 등, 2010)와 문제해결과정이 자기주도학습과의 관련성이 있다

고 보고(김근곤 등, 2008; 김윤희, 2010; 정복례, 2011)한 연구는 있으나 셀프리더십과의 관련성 및 영향력을 설명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최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간호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다양한 간호역할이 요구되며 해결과제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에 필요한 역량을 지닌 간호학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영향요인을 알아야 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시 문제해결과정과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문제해결과정에 이들 변수가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역량 강화 교과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임상실습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과 관련된 변인들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확인한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및 문제해결과정 수준을 측정한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및 문제해결과정과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관련요인의 영향력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하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및 일반적 특성 변인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근접 모집단은 G시와 J도에 위치한 간호학생이며, G시와 J도에 위치한 3년제 전문대학 4곳, 4년제 대학교 3곳에 다니고 있으면서 최근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현장 실습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 경험이 상기되어 변수 문항에 대한 자가평가를 확실히 할 것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1년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해당 학교 간호(학)과장에게 연구목적과 방법을 소개한 후 연구 허락을 받고 교수의 도움으로 학생에게 설문지 580부를 배부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과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해주시도록 하였고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사인하도록 하였다. Nunnally와 Bernstein(1994)는 회귀분석 연구에서 연구 대상자는 예측변수의 최소 10배 이상을 권장하는데 본 연구에서 예측변수는 최대 5개이므로 표본수는 500명 이상이며, 중도탈락을 예상하고 자료결과의 확산을 고려하여 최종 대상자는 580명으로 결정하였다. 무기명 자기 기입방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560부(회수율 97.0%)였으나 이중 미흡하게 응답한 설문지 49부를 제외한 511부(유효율 91.0%)의 자료만이 최종 분석되었다.

연구 도구

● 셀프리더십(Self-Leadership, SL)

셀프리더십에 대한 측정은 Manz(1983)가 개발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를 조경희(2003)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문항구성은 도전의 극복과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자기 기대' 3문항,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미리 연습하는 태도인 '리허설' 3문항, 목표를 설정한 후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목표 설정' 3문항,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보상과 추상적인 무형의 보상인 '자기 보상' 3문항, 일이 잘못되었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자기징계인 '자기 비판' 3문항,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 패턴을 의미하는 '건설적 사고' 3문항으로 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조경희(2003)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자기주도학습 준비도(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DLR)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대한 측정은 Guglielmino(1977)가 개발한 5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측정도구(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SDLRS)를 West 와 Bentley(1991)가 요인분석하여 중복되는 항목들과 문제점이 제기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32개로 축소하여 유귀옥과 정지웅(1998)이 사용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학습에 대한 애착, 학습자로서 자기 확신, 도전에 대한 개방성, 학습에 대한 호기심, 자기이해, 학습에 대한 책임 수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32개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정말 그렇다' 5점까지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유귀옥과 정지웅(1997)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alpha = .73$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문제해결과정(Problem Solving Process, PSP)

문제해결과정 측정도구는 Lee(1978)가 개발한 Process behavior survey를 수정 보완하여 박정환과 우옥희(1999)가 사용한 도구 중 비구조화된 문제 3문항을 삭제하고 문항을 과거형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문제 발견' 5문항, '문제 정의' 5문항, '문제 해결책 고안' 5문항, '문제해결의 실행' 5문항, '문제해결의 검토' 5문항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기준은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까지 범위에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문제해결과정이 매우 체계적이고 확실함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9$ 였으며, 박정환과 우옥희(1999)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0$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19.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등을 구하였다.
-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과정 수준은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과정과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변수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은 Multiple Regression, Stepwise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임상실습하는 간호대학생의 511명의 특

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1±38세였으며, 3년제를 다니는 재학생이 65.0%(332명)이었다. 임상실습기간은 1년 미만인 44.4%(227명), 1년 이상 55.6%(284명)보다 적었다. 간호학에 대한 전공 만족도는 대상자의 73.6%(376명)가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10.2%(52명)는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과정 수준

대상자가 지각한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과정의 수준은 <Table 2>와 같다. 셀프리더십은 문항별 평균 3.62점(±0.45)이었다. 영역별로 볼 때 자기 보상이 평균점수 4.12점(±0.68)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기 기대 3.77점(±0.60), 목표 설정 3.77점(±0.72), 리허설 3.69점(±0.72), 건설적 사고 3.42점(±0.63)였으며, 자기 비판 평균점수가 3.28점(±0.5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문항별 평균 3.53점(±0.43)이었다. 문제해결과정은 문항별 평균 3.37점(±0.46)이었고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 문제 발견이 평균점수 3.52점(±.55)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문제 해결책 고안 3.47점(±0.58), 문제해결의 검토 3.31점(±0.61), 문제

정의 3.29점(±.63)순이었고, 문제해결의 실행 평균점수가 3.24점(±0.49)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과정의 차이

대상자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문제해결과정간의 차이는 <Table 3>와 같다. 셀프리더십 점수는 연령이 23-25세 사이가 가장 높았고(F=3.17, p=.042), 전공에 만족한(F=15.88 p<.001) 경우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점수는 전공에 만족한다(F=26.49 p<.001)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문제해결과정 점수는 연령이 23-25세 사이가 가장 높았으며(F=3.57, p=.029), 실습 기간(t=-3.73, p<.001)은 1년 이상이 높았고, 전공은 만족한다(F=14.14 p<.001)고 응답한 경우가 유의하게 높았다.

대상자들의 문제해결과정과 제 변수들과의 관계성

대상자들의 문제해결과정과 제 변수들과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대상자의 문제해결과정은 셀프리더십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511)

Variable	Category	n(%)	Mean±SD
Age (years)			21.38±2.53
Nursing education system (years)	3	179(35.0)	
	4	332(65.0)	
Clinical practice period (year)	<1	227(44.4)	
	1 ≤	284(55.6)	
Major satisfaction	Satisfy	376(73.6)	
	Moderate	83(16.2)	
	Unsatisfy	52(10.2)	

<Table 2> Score for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process

(N=511)

Variables	Classification	Min	Max	Mean±SD/Item
Self-leadership	Self-expectation	1.67	5	3.77±.60
	Rehearsal	1.00	5	3.69±.72
	Goal setting	1.33	5	3.77±.72
	Self-reward	1.67	5	4.12±.68
	Self-criticism	1.67	5	3.28±.59
	Constructive thinking	1.33	5	3.42±.63
	Total		2.22	5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1.94	5	3.53±.43
Problem solving process	Problem finding	2.00	5	3.52±.55
	Problem definition	1.00	5	3.29±.63
	Problem solving plan	1.40	5	3.47±.58
	Problem solving implementation	1.80	5	3.24±.49
	Problem solving review	1.20	5	3.31±.61
	Total		2.24	5

<Table 3>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proces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11)

Variables	Category	SL		SDLR		PSP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Mean±SD	t or F(p) Scheffe
Age (years)	≤22	3.59±.43		3.51±.41		3.33±.44	
	23-25	3.72±.53	3.17(.042)	3.60±.52	1.19(.305)	3.48±.51	3.57(.029)
	26≤	3.62±.45		3.57±.48		3.47±.50	
Clinical practice period (years)	>1	3.58±.47	-1.74(.080)	3.52±.46	-0.57(.568)	3.28±.45	-3.73(<.001)
	1≤	3.65±.43		3.54±.41		3.43±.45	
Major satisfaction	Satisfy ^①	3.68±.44	15.88(<.001)	3.61±.42	26.49(<.001)	3.42±.46	14.14(<.001)
	So so ^②	3.42±.43	①>②③	3.30±.41	①>②③	3.19±.39	①>②③
	Unsatisfy ^③	3.46±.44		3.32±.39		3.17±.46	

SL: Self-leadership, SDLR: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PSP: Problem solving process

<Table 4> Correlations among self-leadership,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and problem solving process (N=511)

Variable	Self-leadership r(p)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r(p)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657(<.001)	
Problem solving process	.708(<.001)	.623(<.001)

<Table 5> Contributing factors of problem solving process (N=511)

PSA	B	SE	β	t	p	R ²	F	p
Constant	.392	.123		3.20	.001			
SL	.536	.040	.526	13.27	.000	.543	304.50	<.001
SDLR	.292	.042	.277	6.98	.000			

SL: Self-leadership, SDLR: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PSP: Problem solving process

(r=.708, p<.001), 자기주도학습 준비도(r=.623, p<.001)와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다.

임상실습하는 간호대학생들의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연구대상자들의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임상실습기간 및 전공만족도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5>. 그 결과에서 문제해결과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셀프리더십(t=13.27, p<.001)가 52.6%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t=6.98, p<.001)는 27.7%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변수는 문제해결과정을 5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304.50, p<.001).

논 의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인간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질병을 회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있는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제를 알고 해결을 잘 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습시에 요구되는 문제해결과정에 필요한 역량을 학부 과정에 반영하는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임상실습을 하는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였다.

대상자는 대학입학 후 1년 이상 된 자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생이며 응답자는 511명이었다. 연령은 평균 21.4세였으며, 임상실습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응답한 간호대학생이 55.6%였으며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대상자의 73.6%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수준은 문항별 평균 3.62점(만점: 5점)으로 나타나 중간 이상의 셀프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양남영과 문선영(2011)의 연구에서는 3.72점을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보다 높았다.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박경님과 박미경(2008)의 결과에서는 셀프리더십 점수가 64.48점(문항별 3.58점)이었으며, 김명희, 김명수, 채송화와 김영숙(2007)의 연구에서는 58.12점(문항별 3.22점)으

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본 연구 결과를 비추어 보면 간호학생보다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평균점수가 더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간호사와 간호학생의 셀프리더십을 비교한 연구가 없으므로 차후 학생과 근로자인 간호사간에 셀프리더십에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아보고, 간호사가 셀프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있도록 전략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셀프리더십 도구의 하부 5가지 영역별 점수에서는 자기 보상 평균점수가 4.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 기대, 목표 설정, 리허설, 건설적 사고 순이며, 자기 비판이 3.28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양남영과 문선영(2011)의 연구에서는 자기 보상이 4.02점으로 가장 높아 일치된 결과를 보였으며 목표 설정, 자기 기대, 리허설, 자기 비판, 건설적 사고 순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순서와 차이를 보였고 상이하였다. 양남영과 문선영(2011)의 연구대상자와 본 연구의 대상자가 비슷하므로 앞으로 셀프리더십 강화를 위한 역량 교육을 계획하기 전 심도있는 반복연구를 통해 영역별 분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대상자인 대학생들은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약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성적 사고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한다. 셀프리더십은 타고난 개념이 아니라 만들어지는(Henrikson, 2006) 개인적 특성으로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고무되고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Manz & Sims, 1995). 다시 말해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훈련과 노력을 통해 함양될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 프로그램은 셀프리더십의 세부영역 중 학생 스스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강화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으로 마련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상자의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문항별 평균 3.53점(만점: 5점)을 나타냈으며, 이 결과를 볼 때 간호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준비도는 이론적인 평균치인 3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양진주와 박미영(2004)가 보고한 문항별 평균점수는 3.59점이었으며 본 연구결과보다 더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엄미란 등(2010)은 간호실습과 관련된 실험결과에서 실습교육 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가 실험군 3.70점으로 대조군 3.58점보다 높아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사전·사후 검증이 아니어서 실험전 점수를 비교할 수 없었다.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유귀옥과 정지웅(1998)이 보고한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점수는 3.61점이었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양남영과 문선영(2011)이 보고한 학습관련 자기주도성 준비점수는 3.50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으나 간호사로서 학업(학사편입, 대학원)을 진행중인 대상자의 경우는 3.76점 이상

으로 평균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 결과를 볼 때 자기주도성 학습은 학습동기와 학습요구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높아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자기주도성 학습에 대한 측정도구는 Guglielmino(1977)이 개발한 측정도구를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한 논문이 대부분이지만(고정은, 2003; 양남영, 문선영, 2011; 양진주, 박미영, 2004; 유귀옥, 정지웅, 1998; 엄미란 등, 2010) 측정문항이 32개에서 58개까지 다양하여 결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므로 자기주도성 학습 준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신뢰성과 타당성이 검증된 표준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문제해결과정 점수는 문항별 평균 3.37점이었고, 단계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문제 해결책 고안이 3.47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해결 실행이 3.2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문제해결과정인 문제를 발견하고 정의하며, 문제 해결책을 고안하고 실행하며 문제해결을 검토하는 각 단계를 실행하고 정도가 중간은 넘는다고 할 수 있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정환과 우옥희(1999)의 연구에서는 Problem Based Learning(PBL)을 적용하여 문제해결과정 점수를 메타인지 점수에 따라 상위집단과 하위집단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분석하여 직접비교는 한계가 있으나 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단계별로 볼 때 2.75점에서 2.85점이어서 본 연구결과보다 낮았다. 또한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김윤희와 장금성(2011)의 연구에서 보고한 심폐응급간호교육 전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점수는 76.10점(문항별 3.04점)으로 본 연구결과보다 매우 낮았다. 단계별 결과에서는 문제 정의가 3.73점으로 가장 높았고, 문제 정의, 문제해결의 실행, 문제해결의 검토 순이었으며 문제 해결책 고안이 1.88점으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결과와 김윤희와 장금성(2011)의 연구결과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로는 간호사와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실습환경과 관련된 자율성의 차이와 문제의 구체성 여부, 자료수집 시점이라 사료된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는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문제를 임상실습 때 발생한 문제로 정하여 문제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제해결과정과 관련하여 경험한 사항을 기억하여 후향적으로 질의에 답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시간차에 의한 오차가 발생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반복연구를 통해 문제해결과정에 대한 측정도구에 대한 시간차에 따른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를 실시해볼 것을 권한다.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과정은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문제해결과정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수들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R^2 은 54.3%로 나타났으며 중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셀프리더십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문제해결과정 영향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의 관

련성을 보고한 선행연구가 없어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행위 및 인지 전략으로 내재적 동기부여, 개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이라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어(양동민 등, 2011) 학습자의 노력에 따라 개발 가능한 개념이다. 그리고 양동민 등(2011)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목표몰입에 셀프리더십의 영향력($\beta=.124$)을 설명하고 매개효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므로 문제해결을 위한 몰입도와 셀프리더십의 매개적 영향을 연구할 것을 권한다. 대학생들은 고등학교와 달리 스스로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하는데(김미영, 2010), 학생들은 학업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이수진, 2006) 이에 문제해결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주 영향요인으로 작용하는 셀프리더십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것을 권한다.

그리고 문제해결과정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는 상관성이 높고 영향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복례(2011)의 연구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문제해결과 양적인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결과가 지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윤민(2010)은 간호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 영향요인으로 자기주도적 학습($\beta=.191$)을 설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 간호학생의 문제해결과정에 자기주도적 학습준비도가 미치는 영향력($\beta=.277$)보다는 낮았는데, 이는 연구대상과 연구목적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이에 앞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실험연구를 통해 임상실습 간호학생의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변수들을 확인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권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문제해결과정과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들이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임상실습을 한 간호대학생 511명이었으며,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기간은 1년 미만 44.4%이었고 1년 이상은 55.6%였다. 연구결과 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평균 3.62점,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3.53점, 문제해결과정 3.37점이었다. 그리고 문제해결과정 점수는 연령이 22세 이전보다 23세 이상에서($p<.050$), 임상실습기간 이 1년 이상인 경우($p<.001$), 학생이 전공에 만족할 경우($p<.001$)에 높았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은 셀프리더십,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와 정상관 관계를 보였으며, 이 변수들이 문제해결과정의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변수가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영향력 R^2 은 54.3%로 나타났으며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변수는 셀프리더십($\beta=.536$, $p<.001$)이었고

그 다음은 자기주도학습 준비도($\beta=.292$, $p<.001$)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학생들이 문제해결과정에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셀프리더십을 키우고 자기주도학습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학교에서 교과내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임상실습은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현장교육으로 학습의 결과는 셀프리더십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에 달려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이들의 역량이 임상실습 시작 전에 강화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한다면 교육시기를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문제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을 포함한 관계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수행한 간호학생들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므로 추후 이에 대한 반복연구가 시행되고, 또 조절 가능한 매개변수에 대한 탐색 연구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인애(1998). *왜 구성주의인가?* 서울: 문음사.
- 고정은(2003). 간호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자기주도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 *동남보건대학논문집*, 21(2), 97-106.
- 김근곤, 윤진, 최경윤, 박선영, 배진희(2008). 전공 간 협력 프로젝트 학습이 대학생의 의사소통, 문제해결,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2), 252-261.
- 김명희, 김명수, 채송화, 김영숙(2007). 일 대학병원 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과 셀프리더십의 상관성. *간호행정학회지*, 13(2), 176-183.
- 김교식(2004). *조직구성원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이 직무 태도에 미치는 영향W 그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미영(2010). 대학생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연구. *대한공업교육학회*, 35(1), 239-256.
- 김윤민(2010). 간호대학 신입생들의 문제해결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간호행정학회지*, 16(2), 190-197.
- 김윤희, 장금성(2011). 시뮬레이션기반 심폐응급간호교육이 신규간호사의 지식, 임상수행능력 및 문제해결과정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1(2), 245-255.
- 박경남, 박미경(2008). 간호사의 셀프리더십, 조직몰입 및 간호업무수행정도에 관한 연구. *간호행정학회지*, 14(1), 63-71.
- 박정환, 우옥희(1999). PBL이 학습자의 메타인지 수준에 따라 문제해결 과정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연구*, 15(3), 55-81.
- 박지원, 방경숙(2010). 일개 간호대학생의 학습유형과 자기주도적 학습. *간호학의 지평*, 7(1), 36-42.
- 양남영, 문선영(2011). 간호대학생이 자각한 셀프리더십, 임상

- 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7(2), 216-225.
- 양동민, 노현재, 박종민, 김형진, 최경주, 심덕섭(2011). 대학생의 학업 목표 자기일치성이 목표목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력개발학회지*, 13(1), 117-138.
- 양진주, 박미영(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2), 271-277.
- 엄미란, 김현숙, 김은경, 성가연(2010). 표준화를 활용한 실습 교육이 피하주사 간호수행능력, 자기주도학습 준비도 및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한간호학회지*, 40(2), 151-160.
- 오원옥(2002). 간호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자기주도성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2(5), 684-692.
- 유귀옥, 정지웅(1998). 성인학습자의 자기주도성과 인구학적 및 사회심리학적 변인. *사회교육학연구*, 14(1), 119-149.
- 이수진(2006). 사회소속감이 대학생의 학업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교육노총*, 26(2), 117-128.
- 조경희(2003). *셀프리더십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및 간호업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 정복례(2011). 간호대학 신입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경북 간호과학지*, 15(1), 47-64.
- Diliello, T. & Houghton, J. D. (2006).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19-337.
- Henrikson, M. (2006). Great leaders are made, not born.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 Lifelines*, 10(4), 335-338.
- Guglielmino, L. M. (1977).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Georgia. Athens, GA.
- Kazan, A. L. (2000). *Exploring the concept of self-leader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Ohio.
- Lee, J. S. (1978). *The effects of process behaviors on problem solving performance on various tes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hicago. USA.
- Manz, C. C., & Sims, H. P. (1995). *Business without bosses: How self managing teams are building high-performing companies*.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Prentice-Hall, Englewood Cliffs, N. J.
- Nunnally, J.C., & Bernstein, I.H. (1994). *Psychometric theory(3rd ed.)*. New York: McGraw-Hill.
- O'shea, E. (2003). Self-directed learning in nurse education: a review of the literatur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1), 62-70.
- West, R. F., & Bentley. E. L (1991). 'Relationship between scores on the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scale, oddi continuing learning inventory and participation in continuing professional education.' in Huey B.Long & association. *Self-directed learning : consensus & conflict*. Research center for continuing professional and higher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f Oklahoma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Kim, Jung Hyo¹⁾ · Park, Mi Kyung²⁾

1) Chosun Nursing college

2) 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influence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in nursing students during clinical practice. **Method:** Data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s from 511 nursing students in from April 10 to June 10, 2011. Data were analyzed by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procedures. **Result:** The values regarding self-leadership (mean 3.62),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mean 3.53) and problem solving process (mean 3.37) were higher than the median.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ll the predictive variables and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The greatest factors influencing the process of problem solving in nursing students were self-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54.3%). **Conclusion:** By us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s a foundation, nursing education curriculum should be comprised of self-leadership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for improvement of nursing students' problem solving process.

Key words : Problem Solving, Clinical Practice,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Park, Mi Kyung

Department of nursing, Nambu university

23 Cheomdan jungang-ro, Gwangsan-gu, Gwangju City, Rep. of Korea

Tel: 062-970-0153 E-mail: pmk0220@nambu.ac.kr